

05
2018

재외동포의

창

특집: 올해 인천 세계한상대회 “중소기업·청년 해외진출 견인”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 한민족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집중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의 대표적 유적, 전곡리 ‘주먹도끼’

주먹도끼가 서구의 전유물이라는 기존 학설 뒤집어

1977년 3월 주한 미군 병사 그렉 보웬은 한탄강 유원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모양이 특이한 돌을 발견했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그는 심상치 않은 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프랑스의 저명한 구석기 전문가인 프랑수아 보르드 교수에게 사진과 발견 경위를 적은 편지를 띄웠다. 보르드 교수는 “직접 가보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발견이지만 그럴 수 없으니 김원룡(1922~1993) 서울대 교수를 찾아가도록 하라”는 답장을 보냈다. 보웬이 가져온 돌을 본 김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였기 때문이다. 주먹도끼는 형태적으로 끝이 뾰족하거나 전체적으로 둥근 타원형의 석기를 말하며, 기능적으로는 주먹에 쥐고 사용했던 석기를 말한다

당시만 해도 주먹도끼는 서구의 전유물이었다. 인도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동아시아 지역은 찌개(자갈돌을 한쪽에서만 타격을 가해 떨어져 나간 면과 원래의 자갈 돌면이 날을 이루는 석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이는 서양인이 동아시아인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됐다. 전곡에서의 주먹도끼 발견 이후 기존 학설은 뒤집혔다. 김소영 전곡선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전에는 단순히 돌을 쳐서 만든 박편이나 조각을 사용했지만, 주먹도끼는 사람들이 미리 생각해 고차원적으로 만든 도구”라며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동아시아에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곡선사박물관 뒤편 언덕의 계단을 오르면 연천 전곡리 유적으로 이어진다. 보웬이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를 발견한



경기도 연천 남계리 구석기유적에서 출토된 주먹도끼.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이 파주 적성-연천 전곡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연천 남계리 유적’에서 발굴조사에 나서 주먹도끼, 찌개 등 구석기 시대 유물 1천여 점이 출토됐다.



연천 남계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현장. 전곡리 유적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한탄강 유역에 있다.

곳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물은 총 4천600여 점에 달한다. 유적지 면적은 2.55km²(약 77만 평)로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 연천군 일대는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많은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면서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했던 곳으로 확인됐다. [\[장\]](#)



- 02 한국의 얼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의 대표적 유적, 전곡리 ‘주먹도끼’
주먹도끼가 서구의 전유물이라는 기존 학설 뒤집어
- 04 특집 1 올해 인천 세계한상대회 “중소기업·청년 해외진출 견인”
박기출 대회장 “한상들이 남북 교류 확대 과정에서 중요 역할 할 것”
- 05 특집 2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 한민족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집중
동포 인식 재고·동포 처우 개선 논의
- 06 화제 남북정상 “완전한 비핵화 실현… 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문 대통령·김 위원장 ‘판문점 선언’ 채택… “한반도 더는 전쟁 없다”
- 08 한민족 공감 남북정상회담 지켜본 각국 한인단체장 “평화·비핵화 발판 되길”
“북미정상회담 길잡이 역할… 계속 만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해야”
- 09 지구촌 통신원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북중접경 ‘들썩’… “北개방시 경험 회복”
“북중정상회담 이후 단둥 신도시 부동산값 한달새 최고 2배 급등”
- 10 기획 태권도로 개척해 봉제업으로 이어진 중미 온두라스 한인사회
‘한인 1호’는 故 송봉경 사범, 태권도 붐 일으켜… 전 대통령도 제자
- 12 글로벌 코리아 미국 출판계를 뒤흔든 화제작 ‘파친코’ 작가 이민진 씨
한국 여행객 월 8천명 유치… 공자영 인니 인코바람 대표
미용 재료 도매로 연 매출 1천500만 弗… 재미동포 기업인 허순범 회장
- 14 동포소식 “잊지 않을게요”… 유럽 동포, 세월호 4주기 추모제 외
- 17 동포 캘린더 도쿄에서 전후(戰後) 재일동포 삶 보여주는 기획전 열려 외
- 18 유공동포 美 상류사회에 태권도를 뿌리 내린 ‘그랜드 마스터’ 이준구 사범
이소룡, 알리에게도 태권도 가르쳐…
美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민자 명단에 포함
- 19 주목! 차세대 해외 창업 꿈 안고 20대에 태국 이주,
한해 150만 달러 매출 최랑 디자인M 대표
“비싼 월급을 주면서도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국인 채용”
- 20 OKF 뉴스 김영옥중학교 등 한인이름 딴 美 초·중교에 도서 기증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김은경(호주) 2017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가작
- 24 고향의 맛·멋 “밥도둑이 따로 없네”… 곰삭은 젓갈에 반찬도 푸짐한 ‘강경젓갈정식’
일곱 가지 젓갈과 열다섯 가지 반찬… 젓갈은 토굴 대신 저온창고에서 발효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남북은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변혁을 맞게 됐다.



04



06



24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인천 세계한상대회 “중소기업 · 청년 해외진출 견인”

박기출 대회장 “한상들이 남북 교류 확대 과정에서 중요 역할 할 것”



1. 재외동포재단은 4월 20일 미국 텍사스 주 르네상스 달라스 호텔에서 '제32차 세계한상대회운영위원회' 및 '제33차 리딩CEO 포럼'을 개최했다.
2. 재외동포재단은 내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전라남도 여수시를 확정했다.

을 한다.

박 회장은 “재외동포 경제인과 고국 기업 간 윈-윈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위해 각종 경제 단체 발굴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한상 1모국 청년 채용’ 등도 대회기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경제 협력이 재개되면 한상들이 남북 교류 확대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01년 PG홀딩스그룹을 창업해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등지에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며 연간 3억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아시아 대표 한상이다.

내년 대회 개최지로 여수 확정

재단은 2019년 열리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전라남도 여수시를 확정했다.

이번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남도 · 여수시 관계자는 20개 동으로 구성된 전시 · 회의공간, 천장 LED 영상과 함께 넓게 트인 개막식과 야외 연회장,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1천80실 규모 특급호텔, 넓은 주차 공간 등 인프라를 홍보했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한인 경제단체장과 역대 대회장 등 30여 명의 운영위원들은 단독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여수시의 프레젠테이션 후 만장일치로 개최지를 결정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성공적 대회 개최를 확신한다”며 “내년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10월 인천서 “모국과 한상 동반 성장 모색”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23~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한상대회’ 대회는 중소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등 모국과 한상(韓商)이 동반성장하는 대회로 삼겠다고 4월 20일 미국 텍사스 주 르네상스 달라스 호텔에서 열린 ‘제32차 세계한상대회운영위원회’ 및 ‘제33차 리딩CEO 포럼’에서 확정했다.

세계한상대회는 해외 한인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간 네트워크 구축과 한민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한민족 최대 경제 컨벤션이다.

올해 대회장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인 박기출 싱가포르 PG홀딩스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대회장은 전 세계 한상(韓商)을 대표하며, 대회 홍보는 물론 프로그램 구성과 행사 주관 기관과의 유대 관계 등 대회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 한민족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집중

동포 인식 재고 · 처우 개선 논의

재외동포재단은 10월 초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열어 재외동포 및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및 한민족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재단은 4월 17~19일 호주 시드니에서 대륙별 한인총연합회장과 지역 회장 등이 참석한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대회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올해 10월 3~6일 열리는 대회 기본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확정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올해 대회 공동의장을 맡은 임도재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오공태 전 재일민단중앙본부단장, 박세익 전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 강인희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이숙순 재중국한국인회장, 김민선 미국 뉴욕한인회장, 이형만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 국중열 몽골한인회장, 강영신 온두라스한인회장, 강동호 파푸아뉴기니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국내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재외동포사회와 재단의 홍보강화, 그리고 본 대회의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국 한인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장 4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참여 확대와 지역별 동포사회 사정을 고려한 해외동포 처우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참가자 접수는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관할지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가격은 10월 3일 기준, 현직 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연합회 회장이며, 현직 회장이 불참할 경우 동일단체 소속 임원의 대리 참석도 가능하다.



1. 재외동포재단은 4월 17~19일 호주 시드니에서 대륙별 한인총연합회장과 지역 회장 등이 참석한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 올해 대회에서는 한민족네트워크 기반 조성과 재외동포 인식제고에 집중한다.

이 밖에 정부 관계자가 건강보험 · 병무행정 · 납세 · 재외선거 등을 소개하는 '정부와의 대화', 한인사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역별 현안 토론회'가 열린다. 한인 회장들은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10월 5일)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 기간 참가자의 자발적인 장학금 모금을 추진한다. 모아진 기부금은 재외동포 유력경제인들이 주축이 되어 한민족 청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사)글로벌한상드림에 기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천 300여만 원을 모아서 탈북 청년 4명의 국내 정착 및 취업을 도왔다.

한우성 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며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지원하고 모국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남북정상 “완전한 비핵화 실현... 올해 종전선언 · 평화협정 전환”

문 대통령 · 김 위원장 ‘판문점 선언’ 채택... “한반도 더는 전쟁 없다”

남북이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남북은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변혁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 핵실험장 5월중 폐쇄 공개 방침... 비핵화 ‘진정성’ 강조

특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미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한미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준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9일 공개했다. 북한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장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장 폐쇄 발표가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북미 담판에 앞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은 4월 27일 오전에 100분간 진행됐다. 오후에 두 정상은 도보 다리를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30분간 사실상의 단독회담을 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날 도출한 ‘판문점 선언’은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안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극대화하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대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됨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 시계가 빨라지는 한편 본격화 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선언에서 올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타결을 이루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3자 간 큰 틀의 비핵화만 합의된다면 중국 등 여타 관련국들을 참여시켜 이행과정을 담보하겠다는 여지도 열어놨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명시했던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로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하고 5월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선언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고위급회담 등 각급 분야 대화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답방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올해 8·15 이산가족 상봉**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최근 각 정상 집무실에 설치한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통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실제로 평양을 방문하면 분단 이래 남북정상회담을 두 차례 이상 성사시킨 첫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

두 정상은 특히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교류 협력을 원만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전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동해·경의선 철도·도로를 잇기로 했다. 올해 아시아경기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에 공동 참가하기로 하는 등 스포츠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선언은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

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언문 서명 후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고,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리게 됐다”며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해준 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참]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 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가다가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4.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
5.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양측 수행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지켜본 각국 한인단체장 “평화·비핵화 발판 되길”

“북미정상회담 길잡이 역할... 계속 만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해야”

각국 한인단체장들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종전(終戰)을 준비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희망을 쏟아냈다.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몇 개월 전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재미동포들은 고국 방문까지 미뤄가며 노심초사했다. 이번 회담으로 영구적인 비핵화가 이뤄져 근심 없이 고국을 왕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미 간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세계 평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로라 전 미국 LA 한인회장은 한반도에 새 역사가 도래한다고 느껴져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소감부터 밝혔다. 이어 그는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바라건대 이번 회담이 종전의 준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시작,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안전을 위한 논의와 협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종범 민주평통자문회의 유럽 부의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다. 최근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낮은 생활 수준의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우리 민족 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북사업가로 알려진 호주 코스트그룹 회장인 천용수 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그는 “같은 민족으로서 70년 분단 역사의 중지부를 찍고 평화라는 틀 안에서 공동번영의 길



일본 오사카(大阪) 등지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들이 4월 27일 오사카시 이쿠노(生野)구에 있는 재일본 간사이(關西)한국인연합회 회의실에 모여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TV 중계 화면을 지켜보며 박수로 환호하고 있다(좌).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 가운데 중국한국인회가 이번 회담을 환영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베이징 시내 곳곳에 부착했다. 사진은 중국한국인회가 제작한 포스터.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을 공감하며 우리 민족의 위대함에 긍지를 느낀다”며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돼 민족 공동번영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구 철 재일본한국인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정례적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한의 경제지원과 협력, 문화교류도 더 활발해지고, 평화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코리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도쿄 하계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단일팀 출전하자”

김희정 일본공익재단법인 원코리아페스티벌 이사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기를 희망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했으면 한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각국에 거주하는 남북한 동포가 어우러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외동포 정책도 나와주기를 고대한다”면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남북 단일팀이 출전할 수 있도록 정상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북중접경 ‘들썩’ ... “北개방시 경험 회복”

"북중정상회담 이후 단둥 신도시 부동산값 한달새 최고 2배 급등"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이곳 중조변경(中朝邊境·중국과 북한의 접경)에서도 기쁜 소식입니다. 하루속히 교류가 이뤄지고 조선(북한)과 중국 간에도 경제협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는 소식에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주민들은 축하와 함께 경제회복의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거듭되고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단둥은 한반도에 평가가 찾아오면 지역경제를 옥죄던 대북제재가 해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시작된 4월 29일 단둥을 찾았을 때 지역민과 무역상 등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대한 결단을 했다”며 “조선반도에서 핵과 전쟁위기가 사라지게 돼 더없이 반갑다”고 말했다. 압록강변 중련(中聯)호텔에서 만난 중국인 사업가 펑(馮) 모(62) 씨는 “지난 수년간 조선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 무역에 악재가 잇따라 고민이 많았는데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며 “예전처럼 조선과 걱정 없이 무역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3년 전 북중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단둥 랑터우(浪頭)신도시에 조성된 ‘단둥 중조변민 호시무역구’(中朝邊民互市貿易區·이하 호시무역구)의 상인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호시무역구의 한 상인은 “지난달 말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회담한 뒤부터 랑터우 신도시의 땅값이 급등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듯하다”며 “한달 전 평당 3천 위안(약 50만8천 원)이던 부동산 가격이 4천~5천 위안, 심지어 최고 6천 위안(약 101만6천 원)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출퇴근길에 상인끼리 ‘집을 산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시민들도 기쁜 소식이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중국 노동절 연휴인 4월 29일 단둥 랜드마크격인 압록강대교 부근에 유람선이 지나고 있다(위). 중국 노동절 연휴인 4월 29일 단둥 압록강변 공원에 관광객이 몰렸다.

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간다”며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단둥 랑터우신도시 부동산이 들썩이는 이유는 인근에 건설된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북한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며 2014년 10월 완공된 신압록강대교는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통 소식이 없었으나 북중관계 회복에 따라 곧 개통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해졌다.

대북무역에 오래 종사했다는 중국인 기업가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도 큰 뉴스였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와 접경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식이다”며 “대북제재로 막혔던 조선과의 무역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창]**

홍창진 연합뉴스 선양 특파원

태권도로 개척해 봉제업으로 이어진 중미 온두라스 한인사회

‘한인 1호’는故 송봉경 사범, 태권도 붐 일으켜... 전 대통령도 제자

Honduras



1. 테구시갈파 중앙성당. 온두라스는 가톨릭국가이다.
2. 강영신 온두라스 한인회장(가운데 앉은 두 여성 가운데 왼쪽)이 작년 추석잔치 모임 때 교민과 다문화가정 자녀, 한인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740만 재외동포가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직종 가운데서도 ‘태권도 사범’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마스터라고 불리는 한인 태권도 사범은 수련생뿐만 아니라 현지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 정신, 언어도 이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한인 이민 역사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태권도 사범이 ‘이민 1호’가 된 나라도 있다. 중미의 온두라스가 그렇다. 한반도 절반 크기의 국토면적과 860여만 명의 인구를 가진 카리브 연안에 있는 가톨릭국가. 서울에서 가려면 비행기 탑승시간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머나먼 나라다.

이민자로 온두라스 땅을 처음 밟은 사람은 태권도 사범 송봉경(2008년 작고) 씨다.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이던 송 사범은 1976년 온두라스 국방부 초청을 받아 육군사관학교 무술교관으로 갔다. 1년 뒤에는 송 사범의 부인으로 현재 온두라

스 한인회장인 강영신(65) 씨가 온두라스에 들어갔다.

강영신 회장은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남편을 만나면서 온두라스에 정착하게 됐다.

한국과 온두라스는 1962년에 국교를 수립했으나 2004년에야 상주 대사가 부임했다. 강영신 회장은 “우리 부부가 갔을 때 온두라스에는 한국사람이라고 아무도 없었어요. 10년간 우리 가족만 살았어요. 아들·딸이 온두라스 출생 한국인 1호입니다” 라고 말했다. 송 사범은 처음에는 대통령 경호실과 군, 경찰을 상대로 유도를 가르쳤다.

40년 전이라 매트리스조차 없이 톱밥을 깔고 연습했으나 수련생들이 이를 싫어해 유도에서 태권도로 바꿨다. 송 사범은 열성적으로 태권도를 가르쳤고 이를 평가한 온두라스 대통령으로부터 명예 시민권을 받아 개인체육관을 세웠다. 마음 놓고 즐길 공원 하나 없는 곳에서 태권도 체육관은 상류층의 사교장이 됐고 송 사범은 온두라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3. 온두라스에는 1년에 한 번씩 한국대사배 태권도대회가 열린다. 재작년에는 태권도 보급 4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태권도대회가 열렸다. 사진 가운데는 신성기 주온두라스 대사.
4. 강영신 한인회장. 송봉경 태권도 사범의 부인으로 24년째 한국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인 자녀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한글 교육에 힘쓰고 있다.
5. 지난해 온두라스 한인 체육대회 행사.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다.

송 사범의 태권도 제자 가운데는 군 장성, 국회의원, 장관 등 유력인사가 즐비하다. 제자 가운데 대통령도 나왔다. 로보로사 전 대통령은 1994년 산림청장 재직 시절 ‘송봉경 종합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남다른 인간관계를 맺었다. 매일 새벽 5시에 도장에 나와 태권도를 수련했고 국기원 공인 3단증을 받을 정도로 태권도 ‘광팬’이 됐다. 국회의장 재직 당시 스승인 송 사범에게 최초로 국회훈장을 수여할 만큼 각별히 예우했다.

송 사범 사후에도 부인 강 회장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했던 로보 대통령은 2011년 강 회장을 한국 대사로 지명했다. 국내법 규정에 저촉되어 철화하기는 했지만 대신 강 회장의 현직인 사위를 한국대사로 발령낼 정도로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다. 책장암으로 63세를 일기로 타계한 송 사범의 장례식은 국회의장이 장례위원장이 되어 성대하게 치러졌고 로보 대통령과 체육계 관계자들은 송 사범의 생일인 1월 4일을 온두라스 ‘태권도의 날’로 제정했다.

온두라스에 한인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1987년부터다. 인건비가 싸서 의료·봉제업 분야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인들은 800여 명까지 늘어났고 한국인 기업도 70여 개에 이르렀으나 2009년 쿠데타가 일어나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등 여건악화로 지금은 한인이 250~300명으로 줄었고 한인 기업도 10개에 불과하다. 한인교회가 2곳, 한식당이 2곳, 한국

학교가 있다. 모두 테구시갈파가 아닌 제2 산업도시이자 항구인 산페드로술라에 모여 있다. 테구시갈파에는 대사관 직원과 강영신 회장 등 20명만이 살고 있다.

“송 사범 부인 강영신 한인회장, 24년간 한국학교 교장으로 봉사”

강영신 한인회장은 1994년 한국학교를 세워 24년간 교장을 맡고 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말이면 가는데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산페드로술라까지 차를 몰고 출퇴근했다. 지금은 버스를 이용하는데 왕복 9시간이 걸린다. 남편 못지않은 ‘의지의 한국인’이다. 미국으로 가는 마약 루트인 온두라스는 낮에도 함부로 집밖에 못 나가고 상점마다 민간인 경비원을 둘 정도로 치안이 위험하다. 그런데도 강 회장이 40년간 살면서 한국학교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온두라스에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얼굴은 한국사람이고 한국 이름까지 갖고 있는데 아빠가 없는 아이들, 드러난 아이만 30여 명이고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 회장에 따르면 이 아이들이 한국학교에 와서 한글을 배우는데 한국인 피가 섞여서인지 너무 똑똑하고 우리말을 잘한다. 강 회장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상처를 갖고 자라면 평생 한국에 대한 반감을 품을 수 있어 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

재미동포가 재일동포 4대의 수난과 성공을 소설로...

뉴욕타임스, BBC가 '올해의 책' 으로 선정한 '파친코' 작가 이민진 씨



“나는 소설의 플롯(줄거리)과 내러티브(이야기)가 응집되고 구조적으로 견고해서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독자들이 내 픽션에 깊이 몰입되는 경험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작가로서 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소설 '파친코'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재미동포 한국계 작가 이민진(50)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소설은 지난해 전미(全美)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뉴욕타임스와 USA투데이, 영국 BBC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히는 등 미국 출판계를 뒤흔들었다. 이어 3월 19일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 소설은 일본에서 4대를 걸쳐 살아온 한국인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던 20세기 초 부산 영도에서

가난하게 살던 '양진'과 그녀의 딸 '순자', 순자가 개신교 목사인 남편 '이삭'을 따라 일본 오사카에 건너가 낳은 아들 '노아'와 '모자수' (모세), 모자수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가족 4대와 주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일본인들의 끈질긴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결국 파친코 사업으로 돈을 버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사는 작가가 썼다는 점이 이채롭다. 작가는 외부인 이면서도 완전한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 이국땅에서 오랫동안 이민자로 살아온 한국인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재미동포들과 깊은 교감을 이뤄냈다.

이민진 작가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했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인 아버지는 한국에서 화장품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결행했다. 일요일도 없이 일한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그에 부응하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는 예일대 역사학과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로 일하며 한인 이민사회의 성공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보인 글쓰기로 들어섰다.



“선진국 취업 능사 아니다... 성장기회 많은 개도국이 유리”

한국 여행객 월 8천명 유치... 공자영 인니 인코바탐 대표

“싱가포르에 가보면 한국 청년들이 값싼 노동력의 대명사인 말레이시아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성공하기 힘든 싱가포르를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리아우 주의 바탐섬에서 유일한 한국여행사를 운영하는 공자영(54) 인코바탐(INKO BATAM) 대표는 4월 7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모국 청년들에게 “선진국에

진출하면 자랑이고 후진국 취업은 실력이 없거나 도피라는 낡은 사고방식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원 80명의 인코바탐은 20여 대의 관광버스와 4곳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매달 8천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배로 40분 거리다 보니 연계된 관광으로 건너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다.

인코바탐은 한국의 백석대·부산외대 등의 추천을 받아 1년 과정으로 매년 1~2명의 인턴을 채용한다. 그는 “한국 대학으로부터 방학을 이용한 2~3개월 인턴 문의를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다 거절했다”며 “기간이 짧으면 여행하러 온 기분으로 일하게 돼 배우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 대표는 한국의 청년 취업난에 대해 “취업은 사회생활의 시작일 뿐이며 그것이 최종 목표가 돼선 안 된다. 월급쟁이는 삶의 한 방편이지 정답이 아니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며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특구인 Batam에 27년째 거주해온 터줏대감으로 한

인회장도 맡고 있다 보니 그곳으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돕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해외 진출지로서 인도네시아의 매력에 대해 그는 2억5천만의 인구와 한류로 인한 한국인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시스템이 덜 정형화돼 비즈니스에 파고들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폼나게 일하며 성공 바라면 안 돼... 궂은일도 마다 않아야”

미용 재료 도매로 연 매출 1천500만 弗... 재미동포 기업인 허순범 회장

“모국 청년을 채용하고 싶어도 뷰티서플라이(미용재료) 분야는 일이 힘들다고 기피합니다. 정장 입고 책상에서 깔끔하게 일하며 성공을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미동포 기업인 허순범(63) 회장은 4월 6일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는 한국 청년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주문했다. 뉴욕을 기반으로 미용 재료 도매회사 ‘참봉’을 운영하며 1천500만 달러의 연 매출을 올리는 그는 업계에서 ‘세일즈의 전설’로 불린다. 1980년대 후반부터 트럭에 미용 재료 등을 싣고 미국 전역을 누비는 방물장사로 시작해 지금은 뉴저지 주에 대형 매장을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참봉(參奉)’은 조선 시대 종 9품의 말단 관직이다. 이민 초기 자신의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지켜본 동료들이 ‘허참봉’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나중에 창업하면서 회사 이름도 참봉으로 지었다고 한다. 업계 마당발인 허 회장은 모국 청년을 채용해 본 한인 기업들이 서울 주유대학보다는 지방대학 출신을, 부유층 자녀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청년을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이유는 “업무에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를 받는데도 부모로부터 송금받아 여행과 쇼핑에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대부분 잘사는 집 자녀다. 개인 사정이니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일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서 기업도 곧 떠날 사람으로 인식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60~70대인 1세대는 지금도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주말에도 일하지만 2세대는 모두 9시 출근 5시 퇴근을 칼같이 지킵니다. 억척스럽게 일하면서까지 회사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비즈니스는 성장이 멈추면 바로 도태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모르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창의적이고 글로벌합니다. 1세대의 경험과 끈기가 더해진다면 더 많은 거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고 기대했다. **[창]**



“잊지 않을게요”... 유럽 동포, 세월호 4주기 추모제

뮌헨 근교, 파리 등지서 동포·유학생 모여 희생자 추모



4월 15일 독일 뮌헨 근교 마을 바이라비스에서 교민들이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맞아 추모식을 열었다. (사진 '뮌헨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제공)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맞아 유럽 동포와 유학생들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제를 곳곳에서 마련했다. 독일 뮌헨 근교인 바이라비스의 카펠레 교회에서는 4월 15일 오전 교민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4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교회에서 묵념과 추모 음악공연을 한 뒤 인근 언덕으로 당나귀들과 함께 올라가 언덕의 나무를 노란 리본으로 장식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언덕에서는 세월호 노란색 인간 리본 띠를 만드는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를 준비한 '뮌헨 세기사(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관계자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끝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면서 “해외에서의 이런 행사가 약속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를린에서는 교민 모임인 '베를린행동'이 4월 14일 베를린 시내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담은 노란 리본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놓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교민과 유학생이 모여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새겨보는 추모제를 마련했다. 4·16 해외연대 파리지부는 4월 15일 오후 파리 시내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추모문화제 '세월호 맞서다'를 개최했다. 참석한 재불 동포와 유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기금 마련을 위한 베희시장과 주불 한인 예술가들의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4·16 해외연대에 따르면 세월호 4주기 추모행동은 12개국 45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로마서 세월호 4주기 추모미사... “희생자 아픔 어루만지소서”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맞아 4월 16일 저녁 가톨릭의 본산인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한인 성직자들이 주축이 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사가 열렸다. 로마유학사제단협의회(회장 장이태 프란치스코 신부) 소속 신부와 수녀 등 성직자 80여 명과 이백만 주교황청 대사 등은 이날 로마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레고리안 대학의 예배당에 모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함께 기억했다. 총 300명으로 추산되는 로마 체류 신부, 수녀들은 세월호 사고 1주기부터 매년 추모 미사를 개최해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기리고 있다.

이날 미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의 장이태 신부가 집전했고, 강론은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유학 중인 박희전 루케치오 신부가 맡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장 신부의 기도에도 참석자 모두가 숙연해졌다. 박 신부는 강론에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고 이후 철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 사회와 교회가 올바른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 교민 모임인 '베를린행동'이 4월 14일 베를린 시내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담은 노란 리본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놓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촉각’

“베트남 투자 위축 변경 등 큰 변화는 없을 것”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이전했거나 베트남 투자를 늘린 10여 개 업체는 가동재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 흥옌 성에 있는 한 봉제업체 관계자는 4월 30일 “개성공단이 가동을 재개하면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며 “물류비용과 인건비, 언어소통 등 모든 면에서 개성공단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종영 자화전자 베트남 법인장도 “개성공단에 설비가 있으니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물품 일부를 개성공단에서 만들지 않겠느냐”면서 “본사와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여기서 만들어 한국으로 가는 가전제품 등은 이



한국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 빌딩.

전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재개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상호 하노이한인회장은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든지 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회장은 “개성공단의 규모가 대폭 커진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3~5년은 걸리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당장 투자계획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갖춰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3월 말 기준 5천600개를 넘어섰다.

일본사회 차별에 맞서고 고국돕기 앞장 선 ‘민단 70년사’ 발간

재일동포 중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여건이, 이하 민단)이 창립 70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민단 70년사’ (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은 1910년 경술국치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강제징용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으로 시작된 재일동포사회의 유래와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대립을 비롯해 외국인 지문날인 거부 투쟁,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근절 운동 등 차별에 맞서온 역사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6·25 한국전쟁 시 642명의 재일학도의용군 참전, 수출한국의 요람이 된 서울 구로공단·구미공단 투자, 신한은행 설립, 88서울올림픽 100억엔 성금 전달,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10억 달러 외화 송금 등 물심양면으로 조국을 도운 역사도 기술했다. 권말에는 1945~2017년 연표와 48개 지방본부의 연혁·현황을 담았다.

민단은 2016년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기념사업으로 ‘7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했고 1년 6개월에 걸친 편찬작업을 거쳐 887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엮어냈다. 여건이 단장은 “현지화하는 차세대를 끌어안고 1980년대 이후 건너온 신정주자와 일본 귀화자를 모두 아우르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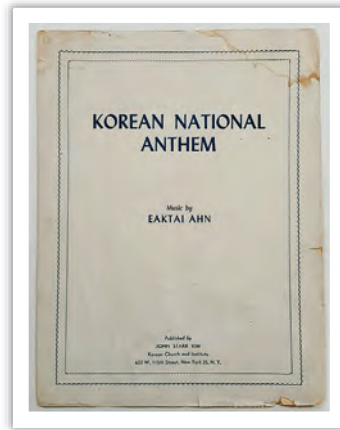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한 일본사회에서 차별에 맞서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해온 역사를 한 권에 담았다”고 말했다.

현존 최고(最古) '애국가 영문악보' 뉴욕 이민사박물관서 공개

현존하는 최고(最古) '애국가 영문악보'(사진)가 공개됐다. 뉴욕한인회 이민사박물관은 1944년 미국에서 제작·발간된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 영문악보를 전시한다고 4월 11일 밝혔다.

애국가 영문악보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글판은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발간됐고 1945년 상하이(上海) 임시정부가 한글·중국어·영문 병기 악보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악보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김근영 목사 가족이 보관해왔고, 이번에 이민사박물관에 기증됐다고 뉴욕한인회는 설명했다.

김 목사는 "당시 안익태 선생과 친분이 있던 매형이 보관해오던 것"이라며 "애국가 영문악보는 국가적 자산이라는 취지에서



기증했다"고 말했다. 악보 표지에는 '한국 국가(Korean National Anthem)라는 제목과 함께, 작곡가 안익태 선생과 발행인 '존 스타 김'(John Starr Kim)의 이름이 표기돼 있다. 존 스타 김은 당시 뉴욕 한인교회 김준성 목사로 알려졌다. 애국가 가사를 영어로 의역한 것으로, 2절까지 표기돼 있다.

이민사박물관은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 영인본도 영구 전시한다고 밝혔다. 뉴욕 유엔본부가 소장하던 것으로, 지난 2016년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민사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뉴욕총영사관에 기탁됐다가 이번에 이민사박물관에 전달됐다.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일본 오사카서 제주4·3 사건 70주년 위령제... 위령비 건립 추진

재일본 제주 4·3 사건 70주년 희생자 위령제가 4월 22일 오후 일본 오사카 시립 히가시나리 구민센터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와 재일본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 제주도 4·3 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위령제에서는 재일동포 음악가



4월 22일 오후 일본 오사카 시립 히가시나리 구민센터에서 제주도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인 한재숙 씨와 그의 딸 한가야 씨로 구성된 재일코리아성악 앙상블 등이 출연해 한라산 백록담의 노래, 망향 제주, 해녀의 노래 등을 공연했다. 안성민 씨는 4·3을 소재로 한 창작판소리 '4월 이야기'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1949년 6월 제주 4·3의 악몽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탈출한 '경계선의 재일 시인' 김시종 씨의 4·3 관련 시도 낭송됐다. 김시종 시

인은 재일동포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유명 시인인 다카미준을 기념해 만든 다카미준상을 수상했다. 행사장에서는 4·3의 진행과정 등을 보여주는 전시물이 걸렸다.

실행위원회는 앞서 3월 10~11일 오사카시립대학교 우메다사테라이트 캠퍼스홀과 오사카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사회와 제주 4·3-일본에서 보

는 시각'이란 주제의 제주도 4·3사건 7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희생자 유족회와 실행위원회는 이날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비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령비는 오사카시 텐노지구에 있는 통국사가 제공한 부지에 세울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재일동포들에게 모금 운동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쿄에서 전후(戰後) 재일동포 삶 보여주는 기획전 열려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한일 교류사를 전시해 온 고려박물관이 4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재일한국·조선인의 전후(戰後)' 기획전을 연다. 일본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견디며 당당한 재일동포로 살아온 6명의 행적을 통해 전후 재일동포의 삶을 알리려고 마련한 행사다. 가와사키 시에서 '헤이트스피치' 근절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조양엽(81) 씨 등의 활약상을 17장의 패널에 담아 전시한다.



전 세계 한인 간호사 학술대회, 6월 뉴욕서 개최

국제한인간호사재단(GKNF·회장 송근숙)은 6월 28~30일 미국 뉴욕 라과디아플라자호텔에서 '국제한인 간호 학술대회'를 연다. GKNF와 재외 한인간호사회(OKNA), 뉴욕 한인간호사협회(NYKNA)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호주·독일·오스트리아 등의 간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송근숙 회장은 "간호계 현주소는 물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인 간호사들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 화합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아 출신 '케이트 허스 리' 개인전 독일서 개최

주독일 한국문화원은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문화원 내 갤러리에서 케이트-허스 리(한국명 이미래·사진)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입양된 이 작가는 시카고, 취리히 등 35개 도시를 옮겨 다닌 경험 등을 소재로 작업 활동을 해왔다. 이 작가는 한국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 2016년에 90일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매일 영상으로 담아 작품화했고,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7월 서울서 한국미술국제대전... 전 세계 한인 대상 작품 공모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 전통문화를 전해온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은 7월 13~19일 서울 용산아트홀 미술관에서 전 세계 한인 미술인이 참여하는 '제25회 한국미술국제대전'을 연다.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대회로, 1인당 2점 이내로 5월 31일까지 작품사진을 제출해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6월 19일까지 출품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kacaf.org 또는 cafe.daum.net/kacaf)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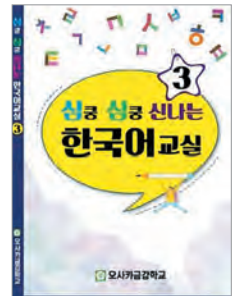
7월 몽골서 亞 한인회장대회·한상대회... 19개국서 100명 참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송은호·사진)는 7월 3~6일 몽골 울란바토르 홀리데이인호텔에서 '2018 아시아한인회장대회 및 제13회 아시아한상대회'를 개최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미얀마 등 아시아 19개국의 전·현직 한인회장과 동포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해 한인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 구축 행사를 진행한다. 대회 기간에 몽골한인상공회 현황 소개와 몽골 투자 관련 설명회도 열린다.



재일동포 차세대·일본 한류 팬 위한 한국어교재 발간

일본 오사카의 재외한국학교인 금강학원(교장 윤유숙)은 재일동포 차세대와 일본의 한류 팬 등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심콩심콩 신나는 한국어교실'을 발간했다. 초·중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재는 읽기·쓰기·말하기·듣기를 12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꾸몄다. 금강학원은 4월부터 시작한 새 학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일본 내 한국학교, 주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민족학급(일본 정규학교의 한국어교실) 등에 배포했다.



美 상류사회에 태권도를 뿌리 내린 '그랜드 마스터' 이준구 사범



2000년 1월 미국 정부가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이민자 203인'에 뽑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고(故) 이준구 태권도 사범. 사진은 2009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좌), 1976년 5월 16일 무하마드 알리와 대련할 당시의 이준구 사범.

4월 30일 향년 86세로 별세한 이준구(미국명 준 리) 사범은 미국인들에게 '그랜드 마스터' (Grand Master), '태권도의 대부'로 불렸으며 남다른 친화력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한 재미동포다. 비즈니스 감각 또한 탁월했다. 1957년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텍사스 대학 토목공학과를 다니던 그는 1962년 6월 28일 '태권도를 배우면 우등생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 189개국 주미 대사에게 발송했고, 그해 워싱턴에 첫 태권도 도장을 개설했다. 당시 강도를 당한 연방의원에겐 전화를 걸어 "태권도를 배우면 강도를 당하지 않는다"고 설득해 태권도를 배우게 한 일화가 유명하다.

명성을 얻은 그는 1965년 미 하원에 태권도장을 설치하고, 상·하원 의원 300여 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등 기라성 같은 미국 정치인들이 그의 제자다.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의 코치를 역임한 데

이어 격투기의 영원한 전설 이소룡(브루스 리), 액션 영화배우 척 노리스 등을 가르치면서 태권도 사범을 넘어서 유명 스타로 떠올랐다.

생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제자를 숫자로 따지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이소룡한테는 족기(발기술)를 가르치고, 나는 그에게서 수기(손기술)를 배웠다. 알리에게는 태권도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소룡과 함께 태권도 영화에도 출연한 고인은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일에 스포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금세기 최고의 무술인' 상을 받았다.

1986년 상·하원 의원을 설득해 '미국 스승의 날'을 제정했다.

구(舊)소련 내 태권도 도장을 합법화해 65개의 도장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 구소련 외교부가 주는 '가장 훌륭한 기사상'을 받았다. 2000년 1월엔 미국 정부가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이민자 203인'에 뽑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됐다.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체육·교육특별고문위원을 거쳐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자문위원에 이르기까지 3대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위원직을 임명받아 미국 발전에 기여했다.

이 공로로 워싱턴 시는 동양인 최초로 미국 의회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2003년 6월 28일 3만 명이 운집한 축구장에서 '준 리 데이'(이준구의 날)를 선포했다. 미 정치 중심지 워싱턴에 태권도를 전파한 지 41년 만이었다. 일흔을 넘겨서도 매일 팔굽혀펴기 1천 번을 하고 송판을 격파할 정도의 체력이었다. 7~8년 전 대상포진이 발병한 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소룡, 알리에게도 태권도 가르쳐...
美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민자 명단에 포함

해외 창업 꿈 안고 20대에 태국 이주, 한해 150만 달러 매출 최랑 디자인M 대표

“한국인은 현지인보다 급여를 3배나 줘야 하지만 리더십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한인을 앉히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제품 디자인 등 브랜드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최랑(35·사진) 디자인M 대표는 4월 8일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려는 한국 청년들에게 “동남아에서 취업·창업의 목표로 한다면 싱가포르에 이어 중심 도시로 주목을 받으며 일자리도 넘쳐나는 방콕에 진출하라”고 제안했다. 2009년 창업한 디자인M은 200여개의 고객사 대부분이 현지기업이다. 창업 초기부터 현지화에 주력했고 한국 브랜드와 한국인에 대한 높은 신뢰 덕분에 쉽게 시장에 진입했다. 제품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매장 인테리어 등을 통해 연간 150만 달러 매출을 올린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해외에서 창업하겠다는 목표로 2009년 태국으로 이주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여러 국가를 돌아보며 시장조사를 벌이고 내린 결론이 태국이었다고 한다. 디자인 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을 보고 한국에서 디자이너를 채용해 회사를 꾸렸다.

“경험은 없었지만 자신감 하나로 회사를 차리고 현지회사를 찾아다니며 홍보를 시작했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고 운 좋게 거래를 트게 돼 사업



“
“비싼 월급을 주면서도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국인 채용”
”

을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가 한국인을 중용하는 것은 태국의 실업률이 0.9%로 취업 걱정이 없다 보니 태국인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한 직장에서 보통 2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급여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데 안 맞으면 바로 회사를 옮기는 게 현지 문화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한국 기업은 장기근속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지만, 태국은 6개월마다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을 능력으로 본다”며 “그래서 한인 기업들은 비싼 월급을 주면서도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국인을 채용한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한국인을 채용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 이 기간 직원은 관광비자로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한인 기업들은 주로 한인사회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한다.

그는 외국 기업이 태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혁신 아이템 또는 기술 이전을 전제로 투자할 경우에는 100% 외국 자본을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9%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으며 51%는 현지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대표는 태국 시장에 대해 “동남아 국가 중에 초중고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어를 가장 많이 선택할 정도로 한류와 한국산에 대한 인기가 높은 곳”이라며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환경이지만 각종 규제나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영옥중학교 등 한인이름 딴 美 초·중교에 도서 기증

재외동포재단은 김영옥중학교 등 한인 이름을 따서 지은 미국 LA의 초·중학교에 한글 도서를 지원한다.

김영옥중학교는 미국 최초로 한국인의 이름이 붙여진 공립학교로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LA에서 태어

나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전쟁영웅이자 인도주의자인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따 2009년에 개교했다.

한우성 재단 이사장은 4월 26일 김영옥중학교를 찾아 저스틴 라우어 교장에게 한글 도서 150권을 전달했다. 기증식에는 장태한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 김주연 세계한인무역협회 LA 지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은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김호 선생을 기리는 찰스 H 김 초등학교, 미국 선수로 출전해 올림픽 다이빙 2연패를 한 새미리 의학박사를 기념하는 새미리초등학교에도 각각 150권씩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세 학교에는 한국어 학습교재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물·문화용품 등도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한인의 이름이 붙여진 학교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한국어·한국문화를 소개해 한국을 제대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이 4월 26일 미국 LA 김영옥중학교를 방문해 저스틴 라우어 교장에게 한글 도서 150권을 기증했다.

9월 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9월 17~21일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인 차세대 리더들의 역량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리는 이 대회에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는 주요 인사 특강, 분야별 포럼 및 주제 강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회, 모국 문화 체험 등을 진행한다.

25~45세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또는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 정치·경제·법률·무역·언론·문화·스포츠·요리·과학·IT 등의 분야 전문가이거나 차세대 단체 임원 등이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5월 18일까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 온라인 접수 후 거주국 공관을 통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차세대 한상 한자리에...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서 주류사회로 진출해 활약하는 한인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가 한자리에 모이는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참가자를 모집한다.

포럼은 10월 23~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열린다. 참가자들은 기업이 초청강연·비즈니스 세미나·지역별 현안 토론·산업시찰·영비즈니스리더의 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차세대 한상 단체인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YBLN)에 가입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할 기회도 얻게 된다. 2008년에 발족한 YBLN은 전 세계 30개국에 2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 한국·거주국에서의 사회공헌, 차세대 인재 육성 등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만45세 이하로 기업 CEO이거나 전문 경제인이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국내외 경제인단체, 재외공관장, 한상 리더 CEO 등의 추천을 받아 공관 또는 재외동포재단으로 5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ean.net)를 참조하거나 사업 담당(☎ +82-2-3415-0152, sanghu5@okf.or.kr)에 문의하면 된다.



오는 10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이 열린다.



바른 말 고운 말

김치를 담가서 김치독에 담다

“요즘 젊은 여성 중에서 김치 담는 법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요즘 젊은 여성들은 김치를 통에 넣는 법을 잘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담다’와 ‘담그다’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다’는 그릇 안에 무엇을 넣거나, 또는 그림이나 글, 말, 표정 속에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담다’는, ‘광주리에 과일을 담아 주세요’, ‘가을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그다’는 액체 속에 무엇을 넣거나, 또는 김치·술·장·젓 따위의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그릇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문은 ‘김치 담는 법’이 아니라 ‘김치 담그는 법’으로 고쳐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김치를 담궈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김치를 담가요’가 옳은 표현입니다.

회의에 참석해, 올림픽 참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가, 참석, 참여’는 그 뜻이 비슷비슷하지만, 각각 사용함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석’은 어떤 모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다, 결혼식에 참석하다’와 같이 쓰여서 ‘참가, 참여’보다는 구체적이고 작은 규모의 형태입니다.

‘참가’란 단어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관계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경기 대회에 참가하다’, ‘어떤 행사에 참가하다’와 같이 ‘참석’보다는 규모가 크고 더 동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참여’란 표현은 어떤 곳에 참가하여 관계하는 것을 뜻하며, ‘사회 참여, 현실 참여, 경영에 참여하다’와 같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모든 회원국이 참석했습니다’가 아니라 ‘참가했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이고 ‘회의에 참가하여’가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여’가 어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018년 4월호 정답

금		죽		박	세	리
수	박	구	원	투	수	어
강			두	견	조	카
산	골	주	막	한	강	
	목	요	일	생	산	지
	대	구	불	모	처	제
주	장	가	로			갈
방	수	구	초	심	사	공
장	대	비		장		명

▶ 오른쪽 방향 열쇠

- 장백산맥 동쪽에 우뚝 솟은 한민족의 영산. 천지 후수가 있다
- 아랫다리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 구둣발로 ‘○○’를 걷어차다
- 서너 사람 또는 너더댓 사람이 여기저기 때를 지어 다니는 모양. ‘삼○○’
-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관절 부위. 사람들은 이곳을 잘 삐조
- 초나라와 한나라가 승부를 겨루는 놀이. 말, 상, 줄 등으로 상대방 왕을 잡으면 이긴다
- 달걀이 받는 봉급. 월봉이라고도 하죠
- 지열에 의해 데워져 따뜻한 물이 솟아 나오는 온탕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 음식이 상하지 않게 차게 보관하는 가전제품
- 얼어붙는 것. 빙결과 같은 말
- 금속 또는 비금속의 고체 표면에 금속의 얇은 막을 단단히 밀착시키는 것. 금이나 은을 주로 사용하죠
- 발에 신고 걷는 데 쓰이는 물건
-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껍
- 다른 산에서 난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옥돌을 가는데에 소용된다는 뜻으로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말

26. 장점과 단점

-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데 쓰이는 기계. ‘기○○기’

▶ 아래쪽 방향 열쇠

- 글짓기 대회. ‘백○○장’
- 깊은 산 속에서 야생하는 삼
- 낮의 12시. ‘정○○’
- 머리털을 깎아 다듬는 것
- ‘○○○’ 감기는 개도 안 앓는다
- 시나 글의 구성법의 하나. 시작 부분, 전개 부분, 일전하여 다른 경지를 여는 부분, 시 전체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 급히 냉각시킴
-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
- 신에게 비는 일. 두 손을 모아 ‘○○’합니다
- 북한에 있는 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으로 불린다
-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기
- 기계나 기구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고. 시계가 ‘○○’나다
- 다른 지점. ‘타○○’
- 돌로 만든 기구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김은경(호주) 2017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가작



늦더위라 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늦게까지 더위가 남아 떠나지를 못한다고 들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분명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내일 최고 기온 예보가 문득 와 있는 가을을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대낮의 그 더위는 분명 한여름의 그것과는 다르다. 햇볕은 살갗에 아주 따갑고 땀 흘리며 웬 더위야... 하면서도 선뜻 선뜻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덥다'가 그리 오래 가진 않는다. 그렇게 자연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런 재앙을 갖고 왔네요" 그런 통탄의 답을 화면에 담기 위해 열심히 취재를 하는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국 피디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가뭄이 왔지만 때가 되면 비가 내려 줄 것이고... 뭐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호주. 지구 최남단의 커다란 섬나라에 그렇게 계절이 가며 자연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그 계절을 어느새 서른일곱 번 넘게 맞이하고 있다. 서른일곱 번.

어느 날 문득 느껴졌다. 아, 어느새 내가 태어난 곳,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여기서 살아낸 시간들이 더 많아졌구나 라는. 그 스스로 대견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이유 불분명한 서러움이 묻어 있는 느낌.

"남의 나라 생활 37년이 어디 만만하기만 했겠느냐"

존경하는 한국의 한 작가 선생님은 내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울컥 눈물이 났던 것 같다. 왜냐고 누가 물어온다면 딱히 내놓을 답은 없다.

새삼 지금 힘든 일이 생겨난 것도 아닌 건 물론이고 무슨 개척 이민이나 망명을 온 것도 아니니 힘들고 서러워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나 잘살겠다, 내 가족 잘 살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고향 땅 뒤로 하고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라고 뭐 다른 건 없다.

어찌어찌 먼저 호주 땅에 정착하게 된 아버지 덕(?)에 결정권은커녕 자기 자신의 거취를 정하는 것에도 아직 확신이 없

던 나이에 '가족 이민'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 와서 산지 어느새 그만큼.

가끔 방문하는 한국에 가면 한국인 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호주에서 살아가며 호주 사람이 되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자리를 지켜 온 게 어느새 그 만큼의 세월이 되었다는 그것뿐이다.

떠나올 때는 '에이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희망이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애국자의 대열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된다.

너희들이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알기나 하느냐고 200년 조금 넘는 짧은 역사를 가진 호주를 슬쩍 얹어 보기도 하고, 잠시 방문한 가수 '싸이'는 내 아들, 내 삼촌인 양, 공연히 어깨에 힘주며 자랑을 일삼으며 '이민자'들은 해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애국자'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누가 이민 가라고 등 떠밀었던가? 아니다. 정말 살 수 없어서 야반도주라도 했던 것인가? 그도 아니다.

그런데 공연히 그렇게 서러웠다. 패배한 느낌,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 같은 그 서러움. 그래서 호주인 앞에서는 한국인이라 자랑스러운 척 하고 한국 방문길에는 선진국 호주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 받은 일인지 은근히 자랑질 하며 떠들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게 서러워라 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지성 갖춘 학부모 되었을 것을 공연히 남의 나라 와 사느라 겪은 조바심이 한 두 번이던가. 받아 온 유인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준비물 제대로 챙겨 보내지 못한 엄마 될까 두려워 아는 단어도 사전에서 확인을 하고 또 하며 스스로를 한심해 했던 나날들.

머릿속에서는 이만큼 멋진 말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굴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발음 때문에 혹시 내 말이 잘못 전달될까 두려워 본의 아닌 과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빠들.

하루 새에 호주 수상이 바뀌었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선거도 없이 한 나라의 수상이 바뀌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답답해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설치해 놓은 한국 위성

TV를 뚫어져라 보게 되는 시간들.

이런 저런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고국의 뉴스라야 뭐 그리 늘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 되었다느니, 앞으로 이리저리 하면 될 것이라느니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평을 할 수 있어 속이 시원해지곤 한다. 친구들과 과 모인 자리에서는 여기 와 살고 있으니 이제 자꾸 한국으로 가는 관심 좀 끄고 여기 정치 형태도 좀 배우며 여기에 집중하며 살자고 말은 하지만 마음 어디 한편은 늘 거기, 바로 두고 온 내 나라, 떠나 온 내 고향에 걸쳐 놓을 수밖에 없다.

그 돈이면 다른 나라 구경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에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마음먹었다가도 마치 철새처럼 한국을 찾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일 년 사 계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내 나라의 소중함은 더 깊어만 간다.

거기, 이제는 기억 희미해지는 어린 시절의 내가 좁은 골목 어디에서 빠끔히 고개 내밀어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광화문, 바람 유별나게 세게 불던 당주동 골목 어귀에 세상의 슬픔이나 고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건방진 스물의 내가 아직 서성이고 있을 것 같은 환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첫사랑이 어디선가 머리 허연 노인이 되어 살고 있을지도 모를 곳.

남의 나라 와 참 열심히 살다가 결국 그 '남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가 버린 내 엄마의 꽃다운 소녀 시절이 묻어 있을 정동 어디쯤이 아직 남아 있는 곳.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래. 시험공부하며 달달 외웠던 그 시구처럼 그저 그립다 말을 하면 터져 버릴 눈물 알기에 아닌 듯, 괜찮은 듯 그렇게 살아 온 것이지.

이제는 그립다 말을 해도 괜찮다.

열심히 참 바쁘게, 뒤 돌아 보지 않고 걷는질도 하지 않으며 잘 달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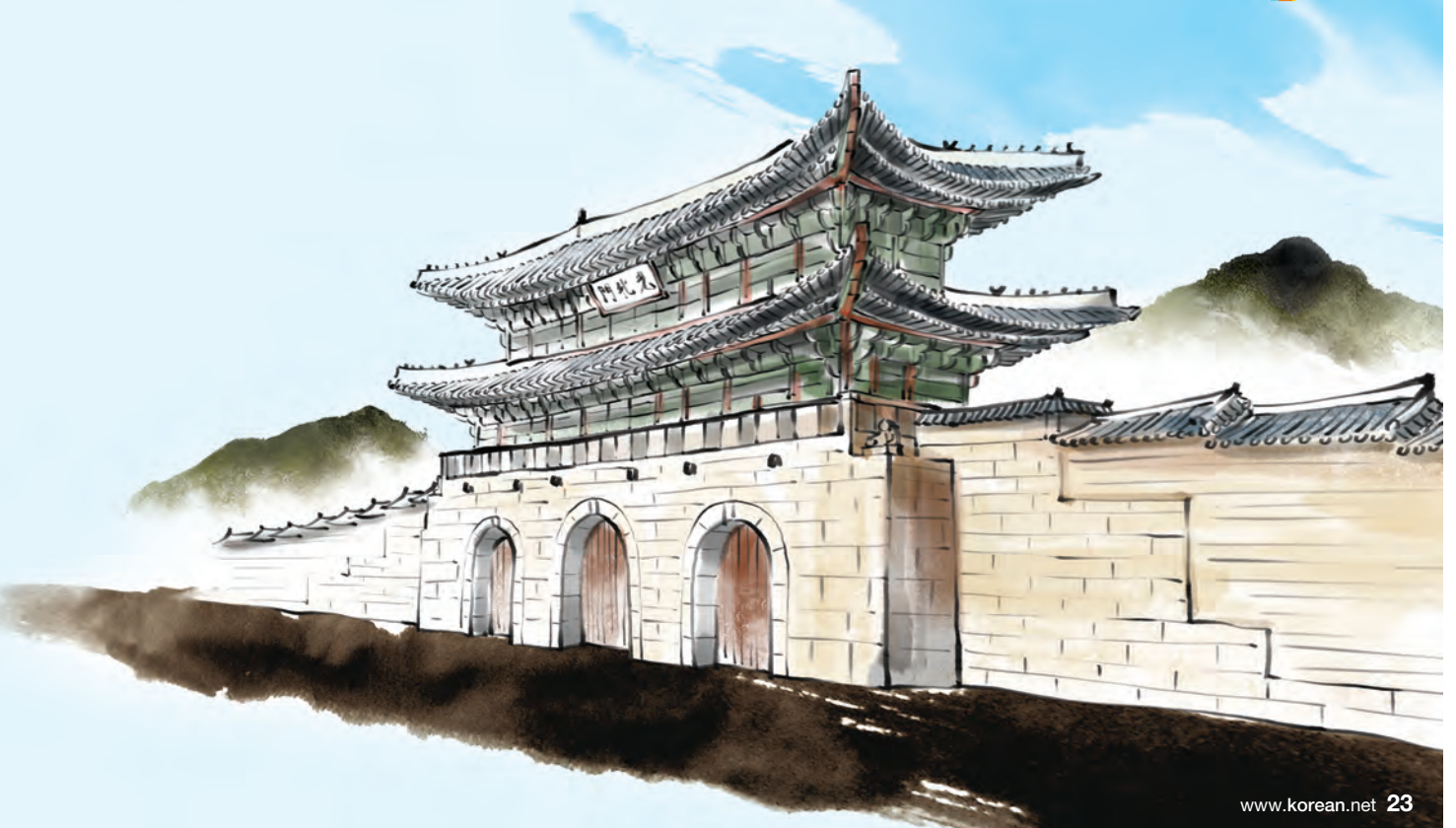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끌어오르는 그리움, 잘도 다독이며 살았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워 할 거다.

하얗게 내린 설악산 눈이 보고 싶으면 겨울에 비행기 표를 끊을 것이고 문득 두릅나물이 못 견디게 먹고 싶어서라면 봄기운 가득한 여행가방을 꾸릴게다. 더 많은 세월 지나 딸 아이가 안겨주는 손주가 물어오면 두런두런 옛날 얘기처럼 해 줄 거다.

“옛날에... 할머니의 아버지랑 어머니가 정말 작은 가방 하나 달랑 싸서 즐망즐망한 아이들 데리고 이 나라에 왔더라. 참 깊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라. 그립다고 말하면 눈물 나게 더 그리워질까 봐 다독다독 마음 여미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 그리움을 조그마한 그 아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이토록 사무쳤던 그리움이 아마 아름다운 추억 되어 파랗고 하얗고 또 노란 풍선처럼 마음에 두둥실 떠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설렘이 있으니 말이다. **장**



“밥도둑이 따로 없네”...

곰삭은 젓갈에 반찬도 푸짐한 ‘강경젓갈정식’

일곱 가지 젓갈과 열다섯 가지 반찬... 젓갈은 토굴 대신 저온창고에서 발효



- 1~2. 강경읍내에 줄줄이 늘어선 젓갈상회와 내부 모습.
- 3. 하얀 쌀밥에 젓갈을 살짝 얹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 4. 젓갈정식의 풍성한 상차림. 그중 으뜸은 역시 명란젓, 낙지젓, 조개젓 등 젓갈류다.
- 5~6. 맛갈스럽게 곰삭은 새우젓, 명란젓.

젓갈은 잃었던 입맛도 되찾게 하는 신통력을 지녔다. 따끈한 쌀밥에 속 깊은 젓갈을 살짝 얹어 먹으면 말 그대로 천하의 별미다. 대표적 젓갈 고장인 충남 논산의 강경 땅에 가면 젓갈의 오묘한 맛을 푸짐한 식사로 만끽할 수 있다. 바로 ‘강경젓갈정식’이다.

서쪽으로 금강을 끼고 있는 강경은 지난해 기준 인구가 9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자그마한 읍소재지다. 하지만 젓갈에 관해서는 전국 유통량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예전보다 그 수가 많이 줄어든 지금도 염천리와 태평리, 대흥리를 중심으로 120여 개의 젓갈상회가 성업 중이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

전국에서 몰려든 젓갈 구매자들로 상회와 식당마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트릴 수 없는 대표 반찬이라면 역시 김치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이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바로 젓갈이다. 채소 의존도가 높은 농경 문화권에서는 나트륨 결핍 가능성이 컸는데 젓갈 섭취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과 함께 식욕 증진도 꾀했다. 젓갈은 대표적 발효식품이다.

강경젓갈정식을 주문하면 일곱 가지의 젓갈과 함께 열다섯 가지의 반찬이 아끼자기하게 놓인다. 여기에 밥과 국, 배추쌈



4




5



6

이 추가된다. 단연 돋보이는 음식은 갈치속젓, 창난젓, 명란젓, 낙지젓, 가리비젓, 조개젓, 밴댕이젓, 갈치속젓 등의 젓갈류다. 조개젓을 제외하고는 붉은 색조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각기 청고추, 홍고추, 통깨가 얹혀져 시각과 미각, 후각적 효과를 더해준다. 이중 값이 가장 비싼 명란젓은 쟁반 한가운데 놓여 귀족 대접을 받는다. 명태 알을 소금에 절여 담갔는데 씹을 때마다 알이 터지며 고소함을 더 해준다. 조개젓은 조개살을 발라내어 소금에 재워 익혔다가 갖은 양념으로 무친 것. 키조개를 사용한 가리비젓은 쫄득한 식감이 일품이다. 낙지젓은 낙지를 가늘게 잘라 소금에 절인 다음 양파, 마늘, 생강, 물엿 등으로 무침을 해 삭힌 것이다.

젓갈과 함께 밥상에 놓이는 반찬은 게장, 꽃게무침, 상추와 부추 곁절이, 양배추대침, 목이버섯볶음, 멸치볶음, 호박전, 간 천엽 요리, 돼지불고기와 상추, 된장찌개 등으로 풍성하다. 1인분 가격이 1만 원이어서 가성비가 무척 높은 편이다.

예전에는 젓갈을 지하 깊이 토굴을 파서 항아리에 저장하곤 했으나 요즘은 창고형의 인공 숙성실과 보관실을 이용한다. 재래식 토굴이 아닌 현대화되고 과학적으로 시설된 저온창고에서 석 달 동안 발효시켜 무기질과 단백질, 지방, 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되면서도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이다. 다만 근래 들어 젓갈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새우젓은 4년째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값이 대폭 올랐다. 오젓, 육젓, 추젓 등 새우젓은 그만큼 식탁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젓갈전시관 · 옥녀봉



강경을 옥녀봉 기슭에 있는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

강경젓갈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보고 배우기에 딱 좋은 곳 중 하나가 황산리의 금강 변에 있는 강경젓갈전시관이다. 대형 선박 모형의 이 전시관의 꼭대기 층에 가면 전망대와 모형조타실이 있어 금강과 강경읍내 등 주변 경관을 둘러보기에 좋다. 전시관에서 북쪽으로 멀리 바라다보이는 옥녀봉도 금강과 논산평야 그리고 강경을내를 사방으로 조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옥녀봉 기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 예배지인 옛 강경침례교회가 'ㄱ'자 모양의 초기집으로 복원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정취를 더한다.

근대역사 문화유산의 고장인 강경을내에서는 강경침례교회 외에도 1905년 건립된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현 강경역사관), 강경포구의 하역 노동자들의 조직체였던 옛 강경노동조합(현 강경역사문화안내소), 1923년 건립된 전통한옥 예배당인 옛 강경성결교회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젓갈축제



강경젓갈축제

감장철인 가을이 되면 강경포구와 젓갈시장, 젓갈공원, 옥녀봉 일대에서 정부가 선정한 '문화관광 우수축제'인 논산강경젓갈축제가 열려 강경젓갈의 역사와 맛, 그리고 신명을 다채롭게 느끼게 해준다. 강경을내의 젓갈상회가 모두 참여해 강경 맛갈젓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축제는 황석어젓 만들기, 젓갈반찬 만들기, 경경포구 탐방, 조선 3대 시장 흥보관 체험, 보부상 난전재현놀이, 젓갈김치 담그기, 양념젓갈 만들기, 전국마당극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22회째인 올해 축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식당정보: 강경 금영숯불갈비 (041-745-2626)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하세요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을 성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성인 분야는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로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가운데 한글문학 창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와 단편소설은 자유 주제이고 체험수기는 이민 후 거주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본인 또는 가족·친지의 체험을 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교생으로 나는 청소년 부문은 거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모국 방문·한국어 학습 경험',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현지 생활 체험' 등입니다. 출품작은 미발표 창작물로 복수 분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역대 성인부문 대상과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동일부분 응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단은 문단의 중진 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월 중순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인부문 대상(300만 원)과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100만 원) 등 30명의 수상자와 한글학교 2곳에 총 3천53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지급됩니다. 올해는 재외동포 이민사 기록문학 활성화를 위해 체험수기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ean.net)를 참고하거나 홍보문화부(+82-2-3415-0097, culture@okf.or.kr)로 문의하세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지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재외동포문학상이 2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한국시간기준
2018. 4. 2 TUE ~ 5. 31 THU

응모 자격
성인부문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부문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외동포 청소년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우수상, 가작, 장려상 수상자는 응모 가능)

공모 분야 및 주제
성인부문 |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시·단편소설 : 자유주제
 • 체험수기 :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을 진솔하게 그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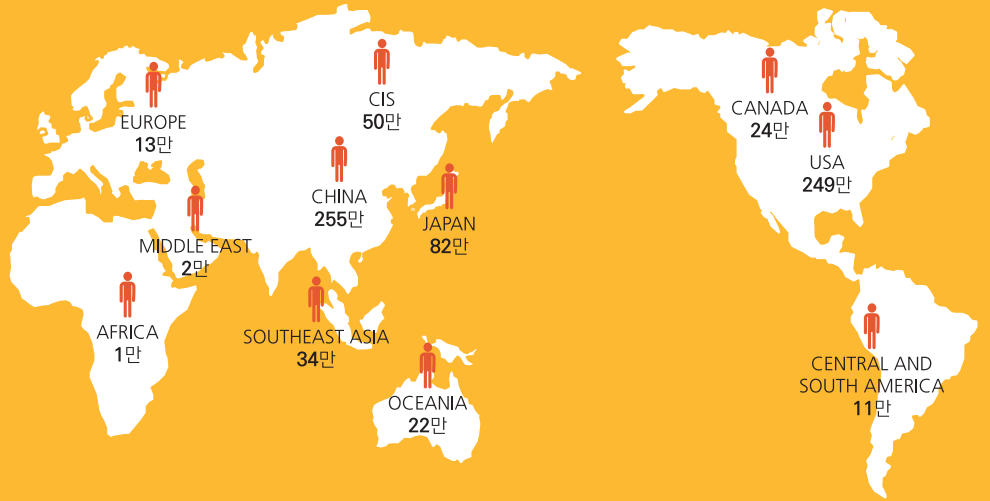
청소년부문 | 중고등, 초등 글짓기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 기타 자유로운 주제(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체험담) 등

시상 내역
총 상금 3,530만원

*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역대 수상작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 분들에게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www.korean.net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Tel. +82-2-3415-0097
 E-mail. culture@okf.or.kr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